

면역력 약해지면 발병...건강관리 중요

건강 바로 알기 잠복 결핵

결핵에 감염되었지만 별다른 증상과 전염성이 없어 본인이 잠복 결핵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잠복 결핵 상태인 사람 중 10% 정도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경우 증상이 없어도 주의해야 한다.

◇ 숨어있는 결핵! 잠복결핵, 전염력이 있을까? 잠복결핵은 활동성 결핵 감염자에 노출되어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면역기전에 의해 활동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무증상이고 전염력이 없는 상태의 결핵, 활동성 결핵의 전 단계에 있는 결핵을 잠복결핵이라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활동을 하여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은 2주 이상 지속하는 기침, 식욕저하, 소화 불량, 체중감소, 식은땀, 가래, 객혈 등을 보이는 반면, 잠복결핵은 이런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아

증상·전염력 없는 활동성 결핵 전단계...치료시 90% 예방

무런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잠복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국내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신규 환자만 약 2만 4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결핵 발병 위험이 높거나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경우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잠복결핵 진단 및 치료=먼저 투베르쿨린 검사(피부반응 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피부에 주입한 후, 48~72시간 이후 지연형 반응을 관찰하여 진단하는 방법이며,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혈액 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해 결핵균에 대한 세포 매개 면역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잠복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투베르쿨린 검사(피부반응 검사)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혈액검사) 두 가지가 있으며, 치료 전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활동성 결핵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잠복결핵이 진단되었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약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매일 1회 복용을 해야 한다. 만약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죽지 않은 결핵균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격리 조치가 필수적인 활동성 결핵과는 달리, 잠복 결핵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잠복결핵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할 경우 활동성 결핵을 최대 90% 예방할 수 있다.

◇ 잠복결핵 예방과 관리=잠복결핵은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다음달=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전남대 윤경철 교수, 한국콘택트렌즈 학회장 선출

전남대학교 윤경철(사진) 교수가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남대 윤경철 교수(의대 안과학교실, 전남대 병원 기획조정실장)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국콘택트렌즈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간이다.

한국콘택트렌즈학회는 1986년 창설되어 콘택트렌즈를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의 학술단체로, 국민 눈 건강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와 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수차례의 학술행사를 통한 기초 및 임상 연구 발표, 정부 정책의 자문, 그리고 콘택트렌즈 교육을 통한 국민 눈 건강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시장규모는 현재 세계적으로 74억 달러, 국내는 약 2800억 원에 이르고, 국



내 사용자 약 500만 명에 이르는 디지털 기기 사용과 근시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 연구학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윤경철 신임 학회장은 "올바른 콘택트렌즈 사용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정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대한안과학회 수련위원장,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위원장, 한국안부학회 간행위원장, 미국 시과학·안과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경조직바이오인터페이스연구센터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와 공동 연구 협약

전남대경조직바이오인터페이스연구센터(센터장 고정태)와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는 최근 치의학 학문 발전과 생체 경조직 분석 및 의료기기 시험, 기술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공동 연구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한 협력 ▲보유기기 활용을 통한 공동 연구 기반 조성 ▲양 기관 학생 및 연구원 교육 상

호 지원 ▲기타 공동 연구에 관한 제반사항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에서 박상원 센터장은 "생체의료시험 연구센터가 전남대치과병원내 개소 3년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약처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의료기기의 제품인증에 필요한 식약처 시험 성적서 발행과 의료기기 기술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이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겠다"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

등산, 걷기·뛰기·자전거보다 건강 개선 효과 크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연령별 등산 운동 비율은 10대 14%, 20대 28%, 30대 31%, 40대 35%, 50~70대 38%로 나타났다. 반면 뛰기 운동 비율은 10대 19%, 20대 15%, 30대 9%, 40대 6%, 50대 5%, 60대 4%, 70대 0.6% 등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30대 이후부터는 걷기와 등산이 주된 운동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10대는 걷기, 20대는 자전거 타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운동 활동과 건강지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운동 활동 중 등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인정보위와 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령대별 운동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등산,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 운동 활동 가운데 등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병원, '뇌졸중' 으로부터 지역사회 지킨다

2년간 광주·전남 혈전제거술 68% 시행...뇌졸중 적정성 평가 8회 연속 1등급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지러움 및 두통이 지속되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 움직임이 약해지는 편측마비 증상 등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서둘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뇌졸중은 뇌로 연결되는 동맥이 차단되거나 파열되면서 발생하며, 뇌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불린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지며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9년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발병 후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장애 발생률 및 사망 위험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뇌졸중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뇌졸중센터 인준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중훈)은 2019년 8월에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선대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치료를 위해 시행된 혈전제거술은 총 354건으로, 광주·전남권에서 시행된 521건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75개 뇌졸중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 중 최다 수준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WSO 엔젤스 어워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이다.

이처럼 조선대병원 한 기관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간의 다학제 협업 시스템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신경계 집중 치료실, 급성뇌졸중치료팀 등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조선대병원은 세계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WSO 엔젤스 어워드'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고, 대한신경중재치료학회로부터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으로 지정됐다. 또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현재까지 8회 연속 1등급을 받는 등 최고 수준의 뇌졸중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 받고 있다.

정중훈 병원장은 "뇌졸중은 발병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도착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춰 지역민이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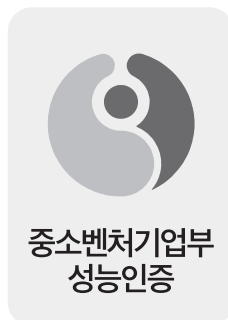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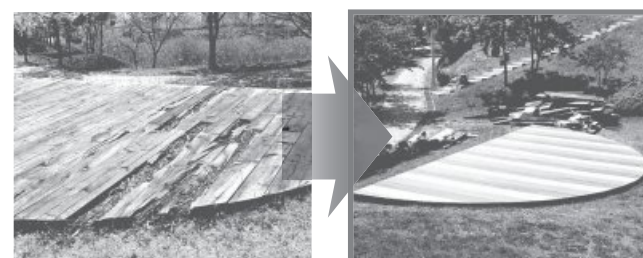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